

내암 정인홍의 문학정신과 현실인식

류해춘*

- 차례 -

1. 서론
2. 사림문학의 계승과 사장문학의 비판
 - 2.1. 영남사림의 문학이론과 그 계승
 - 2.2. 남명학파의 경의사상과 기호사림의 영향
 - 2.3. 사장문학의 비판과 과거제도의 개혁
3. 작품세계에 나타난 현실인식
 - 3.1. 시문학에 나타난 산수자연과 현실비판
 - 3.2. 회퇴변척의 장소와 그 파장
4. 결론

*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rhc0315@hanmail.net

[국문 초록]

이 글은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이 지닌 경세가로서의 문학정신과 그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인조반정(1623)으로 처형되었다가, 1908년에야 신원(伸冤)되었으며, 1911년에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 문집인 『내암집(來庵集)』이 만들어졌다. 영남사림파의 재도지기(載道之器) 문학관을 계승한 그는 경의사상을 위주로 한 문학정신을 이어받았으며, 더불어서 현실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훈구파와 기호사림의 경세주의 문학정신을 수용하였다.

정인홍은 「사동지차(辭同知筵)」와 「문답(問答)」 등의 글에서 사장문학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과거제도의 혁신을 주장한 경세가이며 문학가였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인홍의 문학정신은 그의 문학세계인 시문학과 상소문에 나타난 현실인식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문학은 영남사림이 사장을 비판하는 문학정신과 함께 기호사림의 경세주의 문학정신을 공유하여 그릇된 현실정치와 모순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의 시문학에서는 표면적으로 시인의 심성을 수양하는 자연을 묘사하여도 이면에서는 현실사회를 비판하는 경세주의 경향의 시인정신을 표출하여 봉건사회를 비판하는 혁명정신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 회퇴변척(晦退辨斥)의 상소에서 그는 스승인 남명을 찬양하고 변명하려다가 상대방을 비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스승을 높이려는 의도로 큰 선비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인홍의 시문학이나 상소문에 나타난 문학정신은 도학의 경의정신과 경세주의로 무장한 글쓰기의 전략이라서 17세기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상이며 과거제도의 문장을 개혁하려는 선구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조반정(1623) 후에 반정의 주

도세력에 의해 자백할 수 없는 죄명을 덮어쓰고 정치범으로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가까이 신원(伸冤)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조선후기 영남우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인집단의 학문세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사회는 뿌리 깊은 봉건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늪에 빠져들어서 해마다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정인홍에 대한 연구는 매천 황현(黃玿, 1856-1910)과 단재 신채호(申采浩, 1880-1936)가 선편을 잡아 그의 애국정신과 개혁정신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정치와 역사 그리고 문학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 사림문학, 사장문학, 훈구파, 사림파, 영남사림, 기호사림, 경세주의, 재도지기, 회퇴변척, 개혁정신

1. 서론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은 남명의 수제자로서 남명학파의 중심인물이다. 그가 생존했던 시대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으로 정치사회가 사화와 당쟁으로 얼룩진 시기였으며,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그리고 인조반정(1623)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후에는 연달아 병자호란(1636)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때에는 영남의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여 명성을 얻었고, 그 후에는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면서 자주 가야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산림정승으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나라의 기본인 선비가 엄정하지 못하면, 나라의 근본을 다스

리는 제왕이나 지배세력의 정치행위에 이론을 제공하거나 들러리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선비들이 현재의 비리와 불의를 정당화하면 심하게는 나라가 망할 때 역적이나 침략자의 앞잡이가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면서 광해조 시대에 일어난 혼정의 모든 책임을 떠맡고 사형을 당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혹평은 극에 달했고 남명학파도 결집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의 파란 만장한 생애는 많은 비난과 극히 드문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인홍에 대한 평가가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극과 극으로 선명하다는 것은 복잡한 정치상황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 정인홍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매천 황현(黃玹, 1855-1910)과 단재 신채호(申采浩, 1880-1936)로부터 시작하였다. 매천 황현은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 동학혁명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정인홍의 선비정신과 애국정신을 이황(1501-1570)과 이이(1536-1584) 등의 현인들과 함께 한국의 유학사에서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¹⁾ 단재 신채호는 1931년 여순 감옥에서 소설가 홍명희(1888-1968)에게 쓴 편지에서 정인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채호는 한국역사의 영웅으로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정인홍 등을 꼽았으며, 특히 문인으로서 정인홍의 개혁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²⁾

오늘날 정인홍의 연구는 그의 스승 남명 조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역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그의 정치사상과 경세사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래서 그의 학문경향이나 개혁사상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척

1) 黃玹(1855-1910), 『梧下記聞』 「首筆」, 참조. 後日儒學之興, 可謂極盛, 而眞才實學, 沈淪枯黃, 遂至舉世, 無一個眞道學, 非徒無益於國家, 亦不足爲鄉里之矜式. 非徒無退栗諸賢之盛, 求其如鄭仁弘李玄逸, 初年聞望者, 亦不可得.

2)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別集), 1977, 378-379면.

3) 권인호, 「내암 정인홍의 출처와 경세사상」, 『남명학』 24권, 2019, 39-91면

되어 있다. 이러한 선편을 잡은 논문들을 참고하여서 이 글은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의 문학정신과 창작의 실재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에서 정인홍을 연구한 글은 그의 문학세계를 비평정신이나 설화문학으로 검토한 글⁴⁾ 과 그의 제자에 관한 작가론⁵⁾ 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그가 지녔던 문학정신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그의 문학세계를 시문학과 상소문으로 나누어서 정인홍의 문학에 나타난 사림파의 재도지기(載道之器) 문학관과 기호사림의 경세주의(經世主義)와 관련된 현실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암집(來庵集)』은 정인홍이 1908년 복원되자, 서둘러서 집안에서 전승되는 자료와 실록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후손들이 만든 문집이다. 사후 300여 년간의 공백을 딛고 간행된 책이라 그의 학문이나 문학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내암집』에 게재되어 있는 시문학과 상소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그 외의 자료를 참고하여 그의 문학사상과 창작의 실재를 검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신병주, 「정인홍의 지역적 기반과 정치활동」, 『역사와 경계』 81집, 2011, 289-323면.
 이이화, 「정인홍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남명학연구논총』 2집, 1992, 111-129면.
 이상필, 「내암 정인홍의 학문성향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 6집, 1996, 57-88면.

4) 정우락, 「정인홍의 비평정신과 창작의 실재」, 『퇴계학과 한국문화』 39집, 2006, 207-233면.

황명환, 「설화에 나타난 래암 정인홍의 형상과 그 의미」, 『남명학연구논총』 24, 2019, 293-330면

박상영, 「래암 정인홍 설화의 구조적 특징과 그 미학적 함의」, 『한국말글학회』 28집, 2011, 69-100면

5) 신병주, 「고대일록을 통해서 본 정경운의 영원한 스승, 정인홍」, 『남명학』 15집, 2010, 307-347면.

윤호진, 「고대 정경운의 시문과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41집, 2014, 120-154면.

최석기, 「감수재 박여량의 지취와 문학」, 『경남문화연구』 32집, 2011, 209-249면

2. 사림문학의 계승과 사장문학의 비판

2.1. 영남사림의 문학회론과 그 계승

영남의 사림파인 정인홍(1535-1623)은 문학을 학문의 한 영역으로 간주했다. 그의 문학정신은 사림파가 주장한 것으로 생활 속에서 도학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재도지기(載道之器)의 문학관을 수용하고 있다. 영남의 사림파가 등장하면서 문학과 학문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중요한 인물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라 할 수 있다.

경술(經術)하는 선비는 문장(文章)에 약하고, 문장을 연마하는 선비는 경술에 어둡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문장이란 경술에서 나오는 것이니, 경술은 바로 문장의 뿌리인 것이다. 초목(草木)에 비유하건대, 뿌리가 없으면서 가지가 죽죽 뻗고 잎이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번성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⁶⁾

앞의 글에서 김종직은 경술과 문장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적인 글쓰기는 학문의 경술과 수식하는 문학을 아울러서 융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문학과 학문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하고 있다. 이 둘을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올바른 문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

6) 金宗直, 「尹先生祥詩集序」, 『佔畢齋文集』卷1.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闇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 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 而柯葉之條鬯, 華實之穠秀者乎.

이 사림파의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은 조그마한 재주의 예술이며 시문학의 많은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한다.

문장(文章)은 조그마한 재주의 예술이며, 시부(詩賦)는 많은 문장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하지만性情(性情)을 다스리고 풍교(風敎)를 두루 펴서 오늘날의 세상을 울리고 무궁한 후세에까지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부에 의존하는 것이 실제로 크다. 그러므로 진실한 호걸(豪傑)의 재주가 아니라면 누가 시부를 창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⁷⁾

조선초기의 문학은 도학의 정신을 실은 사장(詞章)과 도학(道學)의 심성수양을 함께 실현하는 시문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초기의 사림파인 김종직과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은 퇴계와 이이보다 먼저 문학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도학과 풍교(風敎)가性情(性情)보다 강조되는 시기를 살았다. 그에 따라 그의 문학도性情(性情)보다는 풍교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시와 문장에 능했던 김일손의 문학관은 기본적으로 도본분말(道本文末)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개 사장(詞章)과 같은 것은 다만 말기(末技)일 뿐이다. 그러나 도(道)가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게 되는데, 그 말이 정(精)해서 사람을 감발시킴이 있는 것이 시가 된다. 그러니 사장이 도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⁸⁾

7) 金宗直, 『佑畢齋文集』 卷1, 「永嘉連魁集序」, 文章, 小技也. 而詩賦. 尤文章之靡者也. 然而理性情. 達風敎. 鳴于當世. 而傳之無窮. 詩賦實有賴焉. 苟非豪傑之才. 其孰能與於此.

8) 金駟孫, 「題權睡軒關東錄後」, 『濯纓全集』 261면, 若夫詞章特末矣. 然有道者必有言, 言之精而有以感發乎, 人者爲詩, 則詞章亦非與道背馳者也.

앞의 글에서 김일손은 도(道)와 사장(詞章) 또는 문학의 관계를 논하면서 ‘사장도 도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 하여 시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도와 배치되지 않는 사장만이 가치가 있는 문학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의 실체는 바로 유교적 실천 윤리인 충(忠)과 효(孝)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시로만 보이는 시’는 문학의 말기(末技)이고 ‘시로만 볼 수 없는 시’야말로 도와 배치되지 않는 시라는 것이다. ‘시로만 보이는 시’는 ‘연월을 조롱하는 시’, 즉 ‘음풍농월하는 시’인데 이러한 시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문학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학정신에 입각하여 시를 지어야 도와 배치되지 않는 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일손도 재도지기(載道之器)의 문학관을 견지했다.

김종직의 문학관을 계승한 영남사림의 문학은 정여창(鄭汝昌, 1450-1504)에게로 이어진다. 정여창은 ‘시가 성정의 발현이니, 성정을 열심히 공부하면 시가 자연히 발현된다.’는 성정발현(性情發現)의 이론을 제시했다.⁹⁾ 그는 사장의 경전을 중심으로 성정을 닦게 되면 시나 문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함께 지동도합을 주장한 정여창과 김굉필은 성정발현의 문학이론을 주장하여 경상우도의 남명학파의 문학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인홍의 문학정신은 영남사림의 글쓰기 전통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서 도학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성정(性情)을 표현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재도지기(載道之器)의 문학관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2.2. 남명학파의 경의사상과 기호사림의 영향

9) 정우락, 「일두 정여창 문학사상의 양상」, 『동양철학연구』 제38집, 2004, 58-62면 참조. 다른 하나의 문학관은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주장한 시를 열심히 공부하면 성정이 도야된다는 의 성정도야(性情陶冶)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정인홍은 조선중기의 불운한 정치가이며 경세가였다. 그는 일생을 처사로서 삶을 살아간 남명 조식(曹植, 1501~1572)의 학풍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남명의 학문을 이어받은 정인홍은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과거시험에만 매달리지는 않았고, 『소학』의 실천적 태도에 몰두하여 경(敬)과 의(義)로서 마음을 지키며 생활하였다. 그는 왕이 불러도 벼슬자리에 잘 나아가지 않았고, 임하(林下)의 산림에서 개결(介潔)한 기질과 학문을 연마하여 고상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영남사림파는 퇴계학과와 남명학파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영남사림파의 문학은 퇴계의 학풍이 영향을 미친 경상좌도의 '상인(尙仁)'의 사상과 남명의 학풍이 영향을 미친 경상우도의 '상의(尙義)'의 사상을 표출한 문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⁰⁾ 하지만 사림파는 문학에서 성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도학의 성정과 문장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퇴계 이황(李滉, 1501-1570)과 율곡 이이(李珣, 1536-1584)의 문학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정인홍은 이황의 성정의 시학보다는 스승인 조식의 경의주의 문학 사상을 전수받았고 기호사림과 훈구파가 지녔던 경세주의의 문학을 수용하였다. 정인홍이 수용한 경의의 시학은 김종직, 김일손 등이 주장한 성정을 표현한 문학을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재도지기(載道之器)의 문학관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정여창이 주장한 사장(詞章)의 무용론은 사림파들의 문학창작에 충격을 준 획기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여창은 도학의 성정을 축적하고 공부하면 문학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문학정신은 정인홍의 스승인

10) 『宣祖實錄』, 권42. 宣祖34년 10월 己丑.

領事 尹承勳進曰 昔者, 上道則 李滉在以學問相尙, 下道則 曹植在以節義相高, 故風俗頗有可觀.

李漢, 『星湖僊說』 권9, 「人事門(退溪南冥)」, 참조.

南冥先生之於右道 退溪先生之於左道 如日月 … 左道尙仁 右道尙義

조식이 가졌던 기본적인 문학정신이었다. 조식은 ‘시가 마음을 거칠게 한다는 계율을 지니고 있었는데, 시인들은 의치가 텅텅 비어 있어 학자들에게 크게 아픔이 되므로 시의 창작을 즐겨하지 않았다.’¹¹⁾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시를 창작하면서 화려한 수식에 치우치면 시를 창작하는 작업이 학자의 마음을 거칠게 한다는 이론이다. 마음을 가다듬는 올바른 문학을 인정하면서도 문학의 해로움은 명리를 추구하며 화려한 수식을 하는 문장에서 생긴다는 사장의 폐해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리고 조식은 ‘시를 짓는 일을 사물을 희롱하고 뜻을 잊어버리면서 사물로 나아가서 교만한 죄를 매양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¹²⁾ 이처럼 정인홍은 문학을 통해서 도덕을 숭상하고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호사림파가 지닌 경세제민과 심성수양의 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재도지문(載道之文)의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호사림과 훈구파의 경세주의 문학정신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과거제도의 폐지에 가까운 개혁적인 문장론을 서술하는 문학정신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조광조의 후예들인 기호사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근기지역의 인물로 영남사림의 문학정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기호사림들도 정치적으로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학연과 지연으로 훈구파 쪽의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훈구파와 비교적 밀접한 교류를 한 기호사림들의 문학정신은 경세주의의 경향이 강했다. 기호사림들과 교류하면서 기호사림들의 입장을 수용한 정인홍은 심성수양의 문학정신과 함께 경세지향의 문학정신을 함께 수용하였다. 16세기 경세지향의 문학은

11) 鄭仁弘, 『來庵集』卷12. 「南冥先生詩集序」, 常持詩荒戒, 以爲詩人意致虛曠, 大學者之病, 故既不喜述作.

12) 曹植, 『南冥集』, 亞細亞文化社刊, 1982.35쪽. 答成聽松書, 嘗以哦詩, 非但玩物喪志之尤物, 於植每增無限驕傲之罪.

김정(金淨, 1486-1521)의 문학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시를 성정이라 규정하면서 고금의 시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시가 경박해져서가 아니라 성정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³⁾ 이처럼 다양한 문학의 견해를 수용한 기호사림은 지치주의 실천의 문학인 경세주의의 문학정신¹⁴⁾을 체득하고 있었다.

기호사림의 경세주의를 인지한 정인홍은 17세기 서울의 지식인들인 김안국(1478-1543), 이이(1536-1584), 이항복(1556-1618), 신흠(1566-1628), 이수광(1563-1628) 등의 기호사림이 보여준 경세주의 문학정신을 수용하고 학습하였다. 그래서 정인홍은 기호사림처럼 문학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상대적인 사유의 태도를 받아들여 경세지향의 문학정신을 많이 수용하였다.

정인홍은 문학으로 당대의 정치현실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것을 개혁하려는 기호사림의 경세주의 문학정신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문학정신은 훈구파와 기호사림이 지닌 경세주의 문학을 통하여 도학이 부재한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도학의 가치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세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인홍의 문학정신은 기호사림이 지닌 사림파의 경세주의 문학관과 영남사림이 지닌 심성수양의 문학관을 함께 계승하며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인홍은 영남사림의 문학정신과 기호사림의 문학정신을 융합하여 문학세계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2.3. 사장문학의 비판과 과거제도의 개혁

13) 金淨, 『冲庵集』4권, 「顔樂堂集拔」, 183면. 古今詩有異, 非詩能爲輕薄, 性情之變然耳.

14) 우응순, 「16세기 사림파의 내적분화와 그 문학적 지향」, 『문학과 사회집단』, 1995. 94면.

정인홍은 경술과 문장이 일치한다는 사림파의 문학을 학습하였고, 사장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던 영남사림파의 문학정신을 함께 수용하였다. 정인홍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장의 문장이 수식에 그치고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폐해를 보여주자 과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선구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선조시대(1567~1608)의 문단과 학계에서는 이황과 이이 등이 주장하는 성리학의 ‘성정의 시학’이 더욱 심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런데 남명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인홍은 이러한 변화보다는 문장과 도학을 일치시키려는 김종직과 정여창의 사림파의 문학관을 그대로 계승하려 하였다. 이러한 문학정신은 지나치게 화려하게 수식을 하여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장문학의 폐해와 과거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는 문장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선비를 문장지사(文章之士)와 명환지사(名宦之士)라고 비판하고 있다.

1602년의 상소문인 <사동지차(辭同知筭)>에서는 명리에 유혹되어 과거시험을 공부하는 일이 사회의 병폐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좇는 습속은 말세에 더욱 심합니다. 인심을 함몰시키는 것이 이단보다 참혹합니다. 사대부 집안의 자손은 서로 이끌고 빠져들어 벼슬에 나아가 경쟁할 줄만 압니다. 그들은 다시 신심(身心)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여 도덕의 실천하기를 어찌 일삼을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예로 장점을 삼아 집안에서 경쟁하고 고을에서 경쟁하며, 나라에서 경쟁하고 조정에서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시작하여 경쟁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재를 기르는데 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인재가 없는 것은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군자는

경쟁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경쟁하면서 능히 그 본심을 잃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앞서가는 유학자가 '심술이 벼슬하기 전에 이미 무너지면, 벼슬한 후의 기상과 절개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점을 말한 것입니다.¹⁵⁾

이처럼 정인홍은 과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에 선비들이 학습하는 과거제도의 문장이 서로 경쟁하고 화려하게 수식하는 일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재의 등용을 위해서는 과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림파에는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나, 선비들이 주로 문장을 하거나 벼슬을 하는 일에 치우치고, 도덕을 연마하는 선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선비들의 명예와 이익을 좇는 관습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인홍은 선비들이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고 집안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세의 현상이라고 개탄하였다.

정인홍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과거제도에 선비들의 문장수업과 도학의 심성수양의 정신을 함께 평가하여 반영하기를 희망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전대 현인의 말에는 ‘과거가 사람을 옳아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옳매이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과거가 명리(名利)로 나아가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옛사람이 그다지 병통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전대의 현인이 분명히 말하기를 ‘득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날마다 과

15) 鄭仁弘, 『來庵集』, 「辭同知筭」.

噫, 爭名趨利之習, 世末尤甚, 陷溺人心, 慘於異端. 士家裔胄, 相率而淪沒, 徒知進取之可爭, 不復知有身心, 視道德爲何事. 而以文藝爲長短, 爭於家爭於鄉, 爭於國爭於朝, 始於爭而終於爭, 則此可謂養之有道乎. 世乏良材, 固不足怪也. 孔子曰 君子無所爭, 豈有所爭而能不失其本心者乎. 先儒所謂, 心術既壞於未仕之前, 既仕之後氣節可想者, 正謂此也.

거에 응시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응시할 마음을 먹었다면 어찌 합격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응시하면서도 득실에 얽매이지 않은 것은 인품이 고고하거나 학문의 힘이 뛰어난 뒤라야 가능한 일이고, 보통 사람들이 바랄 바가 아닙니다.¹⁶⁾

<문답>이라는 글에서 정인홍은 명리에 유혹되어 과거를 공부하는 일은 나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사장파의 문학이 문장을 수식하는 내용에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우선 명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이 과거를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을 닦고 나아가 이상적인 현실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데, 이상적인 현실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된 과거 제도로 인하여 선비들이 명리(名利)의 장으로 이끌려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것은 인품이 고고하거나 학문의 힘이 뛰어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과거공부’라는 것은 곧 이른바 ‘문학의 여기(餘技)’입니다. 혹 공자의 학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디만, 오히려 인심에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가라지풀이 곡식에 섞여 나서 좋은 곡식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고, 도적이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 양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으니, 이것도 곧 문학 가운데 하나의 이단일

16) 『來庵集』卷12, 雜著「問答」, 曰前賢言 不是科舉累人, 人自累爾. 科舉雖曰 名利之路, 古人不甚病之, 何也. 曰, 前賢固曰不以得失爲心, 雖日日應舉可也. 然既有應舉之心, 豈得無計得之念也. 應舉而不以得失爲累者, 或人品高, 或學力勝, 然後可能, 非中人所望也

니다. 또 옛날의 이른바 문학이라는 것이, 어찌 오늘날 구두(句讀)를 거칠고 소략하게 끊으며, 시를 지을 때 평측을 맞추면서 자질구레하게 자구를 꾸미고, 시속이 좋아하는 것을 좇아서 작록을 취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¹⁷⁾

앞의 글에서 정인홍은 과거제도의 시험공부가 ‘문학의 여기’이며 인심을 해치는 데로 나아가니 문학 중의 이단(異端)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인홍은 문인이기보다는 인재가 되기를 당부했다. 지금의 사람들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과거의 시험을 유학으로 알고, 글재주가 있어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은 문인은 될지라도 인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문학에서 수식과 단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음률에 재주를 부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림파의 문학정신으로 사장과 문학의 대표적인 문장연습인 과거제도가 보여준 문장의 지나친 수식과 그 모순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과거제도를 혁신하려고 하였다.

정인홍의 문학정신은 영남사림과 문학을 계승하였으며 기호사림이 지닌 경세주의 문학을 수용하여 사장문학의 폐해와 과거제도의 개혁정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문학정신은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실천위주의 교훈주의 문학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인홍의 문학정신은 시문학이나 상소문을 통해서 도학의 경의정신으로 무장한 경세주의의 전략이라 17세기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문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17) 『來菴集』卷12, 雜著「問答」, 今人之所謂, 科業者, 乃所謂‘文學之餘技.’或不可謂非孔子之術, 而反爲人心之害, 正如莠莠生於穀而害嘉穀, 盜賊起於民而害良民, 此乃文學中一異端也. 且古所謂文學者, 豈今之鹵莽於句讀, 雕篆於聲病, 趨時好取爵祿之謂也

3. 작품세계에 나타난 현실인식

3.1. 시문학에 나타난 심성수양과 현실비판

『내암집』에는 시문학의 자료가 20여수 남짓하다. 그 이유는 정인홍이 죽은 후 285년이 지난 후인 1908년에 복원되자 후손들이 서둘러서 집안에 전승되는 자료와 실록의 기록으로 문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집에는 작가의 검토가 필요한 「영송(詠松)」과 같은 작품도 있고 「유감(有感)」 등의 6편 작품에는 결자(缺字)가 있어 완전한 시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정인홍은 시에서 자연현상과 인간사회에서 체험한 현실을 자주 노래하고 있다. 그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변화를 통해 심성을 수양하고, 인간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심성을 가다듬는 이유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진리가 정확하고 진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욕심에 가려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므로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의 시에서는 소나무와 자연을 노래하는 시, 생활의 공간인 부음정을 노래하는 시, 그리고 전쟁을 회상하는 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자연물인 소나무에 자신의 심정을 투사하여 노래하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항상 새로운 소나무 백척으로 자라나길 바라니	常願新松百尺長
찬 겨울에 서리와 눈이 내려도 풍광을 보전하네	歲寒霜雪保風光
꽃과 나무를 심어 봄빛을 장식하지 말게	不栽花木粧春色

모든 꽃은 해를 마칠 때면 다시 향기롭지 않으리 百花終年更不香

정인홍은 자신의 절개 높은 기상과 정신을 소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화자는 소나무가 눈과 서리를 이기면서 자신의 풍광을 보존하는 기상을 화자 자신의 기개 높은 선비정신으로 투영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강한 자아와 의식을 소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소나무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장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모든 꽃은 한 해를 지나면 향기롭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의식과 정신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청렴하고 강한 자아의 모습으로 심성을 수양하고자 한다. 영원한 소나무는 사람과 선비들의 청렴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일시적인 꽃과 나무는 훈구척신들의 모습으로 파벌에 의해서 정치를 퇴행시키는 훈구척신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정인홍이 어린 시절에 사찰에서 읊었다는 「영송(詠松)」¹⁸⁾이라는 작품이다.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는 정인홍이 산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 때에 감사가 당도하여 기특하게 여겨서 탑 옆의 왜송(矮松)으로 글제를 내고 시를 짓게 하였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시를 읊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척의 외로운 소나무 탑 서쪽에 서 있으니 一尺孤松在塔西
 탑은 높고 소나무는 짧아 서로 가지런 하지 않네 塔高松短不相齊
 오늘 소나무가 탑보다 낮다고 말하지 마오 莫言此日松低塔
 소나무가 자란 다른 때에는 탑이 오히려 낮으리 松長他時塔反低¹⁹⁾

18) 李漢, 『星湖僿說』, 「詩文部(鄭仁弘詩)」, 참조. 鄭仁弘幼少時, 讀書於山寺, 有方伯適到, 夜聞誦聲, 則是寡家稚兒. 異之, 邀至, 問汝能詩乎?. 仁弘遜謝, 方伯以塔邊矮松, 命題呼韻, 使作仁弘, 應聲曰, 短短孤松在塔西, 塔高松下不相齊. 莫言今日孤松短, 松長他時塔反低. 方伯覺之, 嗟歎云, 他日必貴顯, 然志則濫矣, 戒之哉!.

19) 정인홍, 『내암선생문집』 권1, 『한국문집총간』43집, 1988, 309면 참조.

이후백(李後白), 『靑蓮先生集』(補遺編), 77면, 참조.

一尺靑松塔畔栽, 塔高松短不相齊, 傍人莫怪靑松短, 他日松高塔反低 77면. 이 시

이 시는 키가 작은 소나무와 탑의 불균형을 먼저 묘사하고 있다. 한척의 외로운 소나무가 탑의 서쪽에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탑과 비교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가지런하지 않다고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소나무가 탑보다 낮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후일에 성장하면 소나무가 오히려 탑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묘사한다.

작가는 향촌사회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을 탑에 비유하고 있다. 소나무는 명리에 빠진 세력을 견제하고 풍속을 교화하며 애민정신과 인본주의를 실현하려는 청렴한 선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비록 지금은 훈구척신과 종교인들의 부조리와 불합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미래에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림파들이 풍속을 교화하여 부조리가 불합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묘사한다. 화자는 이 작품에서 미래세대인 젊은이와 사림들이 집권하여 부패한 종교인과 훈구척신의 세상을 물리치고 왕도정치와 민본정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정인홍이 의병장으로서 옛날에 싸웠던 전투지역 가운데 현재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를 지나면서 쓴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필의 말로 옛 전장을 지나니	匹馬經過舊戰場
흐르는 강에 남은 한이 서러 길구나	江流遺恨與俱長
지금 누가 적과 화의를 부르짖는가	於今誰唱和戎說
장사들은 그 해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將士當年枉死亡

이 시는 무계전투를 회상하면서 지은 것이다. 1차 무계전투에서 의병들은 성주성을 수복하고 일본의 낙동강 보급로를 끊는 전초전에서와 비슷한 한시(漢詩)가 이후백(1520-1578)의 『청려선생집』에도 실려 있어 이 작품의 작가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승을 하였다. 낙동강 변의 요충지에 주둔한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이 전투에서 의병장 정인홍 휘하의 합천, 고령, 성주, 초계, 삼가 등의 의병들은 1592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왜적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다.

작가는 이 시에서 왜군과 정전협정을 주장하는 화의론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무계에서 죽은 장병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화의를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하며 화의론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시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화의론이 일어나던 1596년 무렵에 쓴 것으로 보인다.

정인홍은 이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직접 의병을 조직하여 전투에 참여하여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다.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그의 모습에서 경의사상과 민본정신을 실천하는 선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백성과 함께 하는 그의 애민정신과 경세제민의 민본주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서 학문이란 생활에서 직접 몸으로 익히고 수련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에서도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백성과 함께 하는 정신을 표현하여 민심에 반하는 화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경세주의 경향의 시인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정인홍은 전쟁으로 얼룩진 부침의 시대를 살면서 사림파의 학문과 이상을 현실정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림파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도학의 시를 창작하면서 현실사회와 정치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경세주의 경향의 문학을 수용하였다. 그는 정치사회의 잘못된 정책을 아주 짧은 시에서도 비판하여 자신의 현실인식을 경세주의 시문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다음은 부음정 주변의 자연에서 도학자로 생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음정은 정인홍이 45세 되던 해에 건립

한 수양과 학문을 위해 건립한 정자의 이름이다. 부음정을 제목으로 하여 지은 시가 몇 편 있다.

봄 이슬 가을 서리에 맑은 기운이 올라오는 데 春露秋霜淑氣升
조그만 집이 시냇가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았네 數椽溪曲占岡陵
스스로 부음이 나의 분수임을 알았으니 自知孚飲爲愚分
하늘가로 높이 나는 일에 나는 능하지 못하다네 天際高翔我未能

앞의 시는 부음정(孚飲亭)에 올라서 주변의 자연을 완상하면서도 사색을 통해서 심성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부음정의 ‘부음(孚飲)’은 주역(周易)의 미제(未濟)괘에서 인용한 단어이다. 주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니 허물이 없다’고 한 효사(爻辭)의 풀이가 그것이다.²⁰⁾ 작가는 부음정에서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 속에서 아무런 허물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 작가는 부음정에서 자신의 분수를 파악하여 만물과 화합하여 자신의 성명(性命)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욕심을 버려서 허물없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도학의 심성수양과 경세주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은 부음정의 자연과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맛비 비로소 개니 뜨는 해가 더디고 霖雨初晴旭日遲
산창의 나그네 잠도 느지막이 깰 때 山窓客睡晚醒時
바람결에 대나무 기운 더하니 봄에 일이 없고 風添竹氣春無事
빗줄기가 꽃향기를 적시니 나비가 알지 못하네 雨澗花香蝶不知
둥지의 제비는 정이 있어 옛집으로 오고 巢燕有情來故宅
그윽한 새는 제멋대로 깊은 가지를 고르네 幽禽隨意擇深枝

20) 『周易』, 「未濟(上九爻)」, 有孚于飲酒, 無咎.

옆 사람은 말하지 말라, 생애가 괴롭다고 傍人莫道生涯苦
 나물 먹고 물 마시는 것으로 배고픔을 즐기리 蔬水由來樂此飢

정인홍은 이 시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풍경화로 그려내고 있다. 하나의 동양화를 보는 듯이 부음정 주변의 경관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수련(首聯)에서는 비가 갠 날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느긋한 나그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함련(頷聯)에서는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라 여유를 가지고 정자 주변의 나비와 꽃향기의 관계가 서로 불일치함을 설명하고 있다. 경련(頸聯)에서 제비와 새들의 성격을 비교하고 있다. 제비는 정이 있어 제집을 찾아오는데 새들은 자유롭게 가지를 고르는 모습을 묘사하여 자유로운 새와 회귀의 본능을 지닌 제비의 차이를 시인의 눈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제비의 모습을 관찰하여 회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새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유스러움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미련(尾聯)에서는 사람들에게 생애의 고락을 말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자고 한다. 화자는 부음정 주변에서 다양한 진리를 발견하고 인간의 삶을 만족하면서 검소하게 생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인홍은 시문학에서도 심성수양의 이론과 경세주의 사상을 융합한 글쓰기를 지향하여 지행합일의 실천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문학에는 자연현상을 관찰하여도 백성들과 함께 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세주의 사상을 배태하고 있다. 정인홍은 <과무계>라는 짧은 시에서도 임진왜란 때에 화의를 주장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경세주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부음정을 공간으로 하는 자연시에서도 도학자의 생활과 현실사회의 부조리나 자연물의 부조화를 함께 표현하여 자연과 인간을 상생시키려는 작가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3.2. 회퇴변척의 상소와 그 파장

상소(上疏)는 신하가 임금에게 서면(書面)을 통하여 군주를 설득하고 자신의 견해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키는 소통방법의 하나이다. 신하가 글을 올려 군주를 설득하고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상소문에는 작가의 사상이나 정치에 대한 주장을 유려한 문체로 담아내야 한다. 상소문 때문에 유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형을 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소문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학식과 문장력을 총동원하여 겸손하면서도 미려(美麗)하고 감동적이면서도 명확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²¹⁾

정인홍(1535-1623)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의사상(敬義思想)을 수양의 방편으로 삼고, 경세사상(經世思想)을 실천의 한 방편으로 삼아 지행합일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정치가이자 경세가라 할 수 있다. 그의 『내암집』에는 상소문이 80여 편이 실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회퇴변척의 상소문은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삶이 인조반정으로 인한 처형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300여 년간 음지에서 보냈던 그의 역사적 평가와 함께 하는 문학의 자료도 흩어지고 사라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인홍의 상소를 대변할 수 있는 회퇴변척의 상소를 통해서 이 상소가 조선시대의 역사에 미친 영향과 그 파장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정인홍은 1604년 『남명집』을 간행하면서 말미에 이황이 조식을 비평하는 말에 대해 변척(辨斥)하는 글을 실음으로써 퇴계의 학문에 대해 비판을 시작했다. 그 후에 조정에서는 많은 토론과 논란을 거친

21) 이민홍, 「1880년대 奏疏에 나타난 儒林의 시국관과 대응책」, 『대동문화연구원』 41집, 2002, 279-320.

임형택, 「수당 이남규와 그의 奏議에 대한 이해」, 『한국문학사의 논리』, 2002, 327-350.

후에 내암의 스승인 남명을 제외하고, 1610년 9월에 정여창(鄭汝昌, 1450-1504),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조광조(趙光祖, 1482-1520),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이황(李滉, 1501-1570) 등 오현(五賢)을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 배향하였다. 그는 1611년 3월에 회퇴변척(晦退辨斥)에 대하여 상소하여 이미 문묘에 종사된 회재와 퇴계의 향교 배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승인 남명이 문묘종사에 배제된 사실은 산림으로 물러나 있던 정인홍의 평정심을 상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스승인 조식이 문묘의 배향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서는 회퇴변척(晦退辨斥)의 상소에 대한 배경과 사림파들의 입장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신은 말한다. 인홍의 이 차자는 단지 언적과 황을 공격한 것이다. 아, 어찌 언적과 황을 쉽게 공격하겠는가? 학문이 끊어진 뒤에 분기하여 대업에 이었으니 깊숙한 뜻을 드러냈으며 어리석은 이를 깨우쳐서 유림의 본보기가 된지 사오십년이 되었다. 재주가 있거나 어리석거나 똑똑하거나 못났거나 모두가 이들을 대유로 알고 있으니 어찌 하루아침의 언론으로 갑자기 공격하여 깨뜨릴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인홍이 이렇게 논의한 이유는 대체로 황이 일찍이 그 스승 조식을 평론한 것에 대하여 분개했기 때문이다. 선배의 장점과 단점을 후학이 쉽게 논할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의 글이 남아 있으니 그 논저를 보면 황과 식의 순자(醇疵)를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22) 『光海君日記』(太白山本), 3年 辛亥 3月 26日 丙寅條. 史臣曰 仁弘之是節, 專攻彦迪滉, 嗟乎彦迪滉, 奮乎絕學之後, 潛心大業, 闡明奧義, 覺悟昏蒙, 矜式儒林者, 已四五十年矣, 舉世之人, 無智愚賢不肖, 皆知其爲大儒, 則是豈可一朝言論遽爾攻破哉(自史臣曰至此, 鼎足山本無), 仁弘之爲此論, 蓋憤滉嘗論其師曹植也, 先輩長短, 非後學所易論, 然二人遺文俱在, 觀其論著, 則滉植之醇疵, 可見矣.

회퇴변척의 상소로 정인홍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정인홍은 스승인 조식을 높이 보고 변명하려는 순수한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황을 비난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굴절시켰다. 잘못 굴절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인의 비난을 받고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남명학파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전체가 위축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당대의 유력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정인홍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은 정인홍의 편을 들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비답(批答)을 내렸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정인홍은 자신의 문인들을 제외한 전국의 당대 선비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후세의 선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이황이 조식의 노장사상을 비판한 것은 이미 퇴계는 ‘송정학(崇正學)’의 길을 가고 있었으므로 남명보다는 후학들이 노장사상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황은 문묘에 종사가 되고 조식은 문묘에 종사되지 못하게 되자 스승을 변명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황을 비난한 것이다.

정인홍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김종직과 김일손 그리고 김굉필과 정여창으로 이어진 영남사림에서 계승한 도학의 맥을 조식이 계승하였다고 확신하였다. 조식은 남쪽의 지리산에서 태어났다. 기묘사화의 참변이 일어난 뒤로 사림파의 선비들은 간혹을 두려워해서 안면을 바꾸고 머리를 고치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정인홍은 ‘하지만 남명 조식만이 지리산처럼 우뚝하게 서서 사림의 도학정신을 지속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추운 겨울날의 송백과도 같다.’고 하면서 스승의 선비정신을 찬양했다.²³⁾

정인홍은 김굉필로부터 조광조에게 전해진 도학의 맥이 남명에게로 이어졌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다음으로 도

23) 전병철, 「辨誣에 담긴 정인홍의 남명학 변호와 그 의미」, 『남명학보』 제11권, 2012, 34-35면.

학의 맥이 남명을 제외하고 이언적과 이황으로 문묘종사가 이어진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주장은 김굉필과 정여창 그리고 조광조로 이어지던 도학의 맥이 스승을 비판하는 학자들에게 도학의 정통이 계승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스승인 남명의 변호에서 말미암은 이유뿐만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계승될 도학의 전통이 변질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하는 도학의 맥은 절의와 실천을 중시하던 도학의 관점에서 학문의 선양을 중시하는 도학의 관점으로 도학의 전통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인홍은 회퇴변척의 상소가 한 원인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몰리어서 인조반정 이후에 극형에 처해지는 정치범이 되었다. 그래서 봉건사회인 조선시대에 상소문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학식과 문장력을 총동원하여 겸손하면서도 미려하고 감동적이면서도 명확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했다.

이덕형(1561-1613)은 정인홍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금이 삼공을 보면서 물었다. 정인홍은 무슨 연유로 떠났소. 영의정 이덕형이 말하였다. '신은 정모를 잘 모르지만 지난해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처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됨이 어떤 일이 옳다고 여기면 옳다고 생각해서 시종일관 고치지 않고, 어떤 일이 아니라고 들으면 시종일관 아니라고 여겨서 또한 고치지 아니합니다.'²⁴⁾

정인홍의 성격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기개로도 보여 진다. 이러한 실천적 행동은 정치적

24) 鄭仁弘, 『來庵集』上, 「大司憲時」, 아세아문화사, 1983, 670면. 自上引見三公問曰, 鄭仁弘, 緣何故而去耶. 領議政李德馨對曰, 臣不識鄭仁弘, 而往年南下, 初見其人, 爲人, 知某事之是也, 則終始不改, 聞某事之非也, 則終始爲非, 亦不改之.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이면서 그의 학문의 기본이 되는 의리의 체현과정의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나친 그의 개결(介潔)한 선비정신은 유연성의 부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골에 살았지만 강개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였으며 난리 때에는 창의하고도 공을 내세우지 않았으니 그 절조와 품모는 남들이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성룡과 크게 맞지 않아 양쪽문인들이 서로 배척하였으며, 남인과 북인 사이의 알력이 이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게다가 인홍이 남명을 높이고 퇴계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비난과 폄하의 표현을 문자로 드러내었으므로 사류의 비난을 받았다.²⁵⁾

앞의 내용은 정인홍이 1607년 5월 15일에 올린 기축옥사에 관련된 상소에 대하여 사신이 평가한 내용이다.

이황과 조식은 기본적으로 유학자라는 점은 같지만 이황이 성리학만을 숭상했다면 조식은 유학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의 장점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항상 갈등의 요소로 상존하고 있었다. 위의 내용은 정인홍에 대해 비교적 공정한 비평으로 보인다. 정인홍이 스승인 조식의 문묘종사를 주장하려다가 이황과 이언적을 비방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다. 스승을 높이려는 의도로 큰 선비의 단점을 보려는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스승을 높이려는 것 외에 부귀영화에 대한 사욕이 개재(介在)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비난하

25) 『宣祖實錄』, 卷211, 40年(1607) 丁未 5月 丁丑條. 雖居林下, 慷慨憂國, 壬亂倡義, 不尸其功, 其節操風裁, 有人所難及處. 與柳成龍大不合, 二家門人互相排軋, 南北之黨, 至此愈深, 可以仁弘尊南冥, 譏貶之辭, 形於文字中, 以此爲士類所詆.

는 것²⁶⁾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조반정(1623) 후에 반정주도세력에 의해 자백할 수 없는 죄명을 덮어쓰고 정치범으로 처형되었음에도 300년 가까이 신원(伸冤)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회퇴변척(晦退辨斥)으로 인한 선비들과 조정의 악감정으로 인해 정인홍과 반대되는 당파의 지속적인 권력장악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내암 정인홍(1535-1623)의 문학정신과 그 창작의 실재를 검토하였다. 정인홍은 평생을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경세주의를 실천하면서 살았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리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물리쳤고 의리에 합당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서라도 쟁취하려고 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인홍의 문학정신은 김종직의 제자들이 계승한 사림문학의 한 갈래인 재도지문(載道之文)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정여창(1450-1504)과 김굉필(1454-1504)이 계승하여 조식(1501-1572)에게 영향을 끼친 문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정인홍은 사림문학을 계승하면서 생활 속에서 도학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영남사림이 특징인 재도지기(載道之器)의 문학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또한 정인홍은 그의 스승인 조식이 강조한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기호사림의 경세주의 문학정신을 함께 수용하였다. 영남사림인 이언적과 이황의 문학이 도학의 내면에 담겨있는 심성의 수양에 중점

26) 이상필, 「내암 정인홍의 학문성향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6, 87면 참조.

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정인홍의 문학은 당대의 정치현실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것을 개혁하려는 경세주의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당대 기호사림의 경세주의 문학을 수용한 것이다. 이어서 정인홍은 사장문학을 비판하면서 과거제도의 변혁을 주장하였다. 「문답(問答)」과 「사동지차(辭同知節)」 등에서 사장과 문학의 대표적인 문장연습인 과거제도가 지닌 명리추구와 지나친 수식을 비판하면서 과거제도의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정인홍의 문학세계는 크게 시문학과 상소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작품세계에 나타난 작가의식에서는 먼저 사림문학의 전통을 이은 심성수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수와 자연을 읊은 시문학을 살펴보았다. 정인홍이 창작한 시문학에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세주의 사상을 배태하고 있다. 정인홍은 전쟁으로 얼룩진 부침의 시대를 살면서 사림파의 학문과 이상을 현실정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림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도학의 시를 창작하면서 현실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세주의 정신으로 시문학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조정의 대신들이 민심에 반하게 화의를 주장하자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경세주의 경향의 시인정신을 짧은 시작품에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문학에 나타난 작품세계는 도학의 심성수양을 강조하며 경세주의 경향을 지니는 교화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정인홍의 상소문에 나타난 경세주의 경향과 현실고발의 정신은 사림파의 문학관과 경의사상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는 벼슬살이 나아와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단호하고 상소문에서 주장하는 시폐에 대한 극론을 펼치고 주장하는 모습은 당시 다른 유학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굉필과 정여창 그리고 조광조로 이어지던 도학의 맥을 스승이 잇지 못하자 도학의 정통이 잘못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소를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스승인 남명의 변론에서 말미암은 것만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계승될 도학의 전통이 변질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서 정인홍은 자신의 문인들을 제외한 전국의 당대 선비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후세의 선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정인홍은 기호사림이 지닌 경세주의의 문학관과 영남사림이 지닌 심성수양의 문학관을 함께 수용하여 심성수양과 경세주의의 문학정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문학정신을 개척하는 선구자였다. 그리고 시문학과 상소문에 나타난 그의 문학정신은 유학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선비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세주의의 문학정신을 수용하여 사회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민본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개혁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literary spirit and the world of works in Jeong In-hong

Ryoo, Hae-Choon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iterary spirit and the world of works of Jeong In-hong(1535-1623),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Nam-myeong school. The time of his survival was the time when the political world was stained with the disarray of scholars and struggle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Hungu(훈구파) and Sarim(사림파).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he became a famous leader of Yeongnam, and after that he became a famous person as a forestry man, often traveling between Gaya Mountain and Seoul, distanced from real politics.

Jeong In-hong's literary spirit inherited Yeongnam Sarim's view of literature, and was influenced by his teacher, Yeongnam Sarim's view of pragmatic literature, and the view of the light-seated literature of Sarim in Seoul, who is interested in the real society. Thus, in his article "Question and Answer(문답)", he criticized the abolition of the president's literature and insisted on innovation of the past system. Based on this spirit of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d his literary world by dividing it into poetry and appeal.

In poetry, the spirit of the literary spirit of the re-dojna of Yeongnam Sarim appeared together with the spirit of the Politicalism

of the symbol Sarim, and pursued harmony between the cultivation of mind and the criticism of reality. His poetry has a poetic spirit of the tendency of the Politicalism that observes the real society on the other side even though he expresses the poet's mind by depicting nature on the surface.

Key words: the literary spirit, the world of works, pragmatic literature, Sarim in Seoul, the Politicalism, the criticism of reality, the cultivation of mind

[참고문헌]

□ 기본자료

金駟孫, 『濯纓全集』

金宗直, 『佔畢齋文集』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別集), 1977.

위키백과(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인홍, <https://ko.wikipedia.org/wiki>, 참조.

鄭仁弘, 『來庵集』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黃玪, 『梧下記聞』

□ 논문

권인호, 「내암 정인홍의 출처와 경세사상」, 『남명학』 24권, 2019, 39-91면.

류해춘, 「남명 조식의 선비정신과 작가의식」, 『국제언어문학』 43집, 2019, 251-284면.

신병주, 「정인홍의 지역적 기반과 정치활동」, 『역사와 경계』 81집, 2011, 289-323면.

신병주, 「고대일록을 통해서 본 정경운의 영원한 스승, 정인홍」, 『남명학』 15집, 2010, 307-347면.

박상영, 「내암 정인홍 설화의 구조적 특징과 그 미학적 함의」, 『한국말글학회』 28집, 2011, 69-100면.

윤호진, 「고대 정경운의 시문과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41집, 2014, 120-154면.

이상필, 「내암 정인홍의 학문성향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 6집, 1996, 57-88면.

이민홍, 「1880년대 奏疏에 나타난 儒林의 시국관과 대응책」, 『대동문화연구원』 41집, 2002, 279-320면.

임형택, 「수당 이남규와 그의 奏議에 대한 이해」, 『한국문학사의 논리』, 2002,

327-350면.

전병철, 「辨誣에 담긴 정인홍의 남명학 변호와 그 의미」, 『남명학보』 제11권, 2012, 34-35면.

정우락, 「정인홍의 비평정신과 창작의 실제」, 『퇴계학과 한국문화』 39집, 2006, 207-233면.

최석기, 「感樹齋 朴汝稷의 지취와 문학」, 『경남문화연구』 32집, 2011, 209-249면

황명환, 「설화에 나타난 래암 정인홍의 형상과 그 의미」, 『남명학연구논총』24, 2019, 293-330면.

접수일: 2020.07.24 총평일: 2020.08.20 게재확정일: 2020.08.29